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식: 포커스 그룹 연구

장희경¹, 길초롱^{2*}, 김혜진², 배한주², 양은옥², 윤미림², 하자현²
¹경상대학교 간호대학&건강과학연구원, ²경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Nurses' Perceptions of Person-Centered Care in Long-term Care Hospitals: Focus Group Study

Hee-kyung Chang¹, Cho-rong Gil^{2*}, Hye-jin Kim², Han-ju Bea²,
Eun-ok Yang², Mi-lim Yoon², Ja-hyeon Ha²

¹College of Nursing, Gerontological Health Research Center in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²Graduate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라도와 경상도 내 위치한 요양병원 4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21명이며, 각 병원에 1개씩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총 4개의 포커스 그룹에서 면담을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였고 질적 주제분석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식은 6개의 주제와 11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으며, 6개의 주제는 “개별 요구 존중하기”, “끝까지 동행하기”, “남은 꿈 지지하기”, “가족과 동반자되기”, “집처럼 생활하도록 돕기”, “문화 변화시키기”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인간중심돌봄은 노인의 선호도에 따라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또한 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 구성원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결정을 공유하며 노인의 권리와 자율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및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인간중심돌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간중심돌봄 문화 형성에 필요한 다각적 요구를 확인하고 인간중심돌봄을 기반으로 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and describe Korean nurses' perception of person-centered care for elderly 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ur focus group interviews consisting of 21 nurses working in four long-term care hospitals in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s. Participants completed interviews from July 19 to 30, 2018.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transcribed, and analyzed by employing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Six main themes for the attributes of person-centered care for elderly patients in the long-term care hospitals were conceptualized: respecting individual needs, walking to the end, supporting hidden dreams, becoming a family partner, helping patients live like they are at home, and changing culture. Person-centered care perceived by nurses was conducted to provide individualized nursing according to elderly's preferences and help them discover the value and meaning of life through various activity programs. Nurses also recognized person-centered care to maintain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share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as well as to form a physical environment and organizational culture that respects the rights and autonomy of the elder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diverse needs of the elderly and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based on person-centered care.

Keywords : elderly care, focus groups, nurses, person-centered care, qualitative research

본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8R1C1B6007828).

*Corresponding Author : Gil-Cho Rong(Gyeongsang National Univ.)

Tel: +82-10-4748-8871 email: saymyname29@naver.com

Received August 23, 2018

Revised September 14, 2018

Accepted November 2, 2018

Published November 30,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전체 인구의 13.8%로 15세 미만 유소년인구(13.1%)를 앞질렀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 노인전문병원인 요양병원의 수도 증가하여 2018년 1/4분기에 1,535개로 2009년의 714개 대비 115.0%가 증가하였다[2]. 향후 고령화 속도에 따른 요양병원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병원의 규모나 양보다는 서비스 내용 등 병원 운영의 질적인 요소가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 입소를 꺼리는 노인이나 가족에게 입원 결정 시 가장 큰 장애는 요양병원이 임종을 준비하는 장소로 여겨지는 인식에 기인한다는 보고들이 있다[3,4].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과 그 가족은 질병 치료 및 일상의 요양뿐 아니라 임종에 이르기까지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5]. 선행연구에서는 높아져가는 간호 요구에 비해 서비스 질, 치료적 환경 조성 및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간중심돌봄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6]. 사공혜와 이가연의 연구[7]에서 요양병원의 간호서비스 질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인간중심돌봄(person-centered care)’이었다. 인간중심돌봄 개념의 기원은 질병이 아닌 환자에게 중점을 두어 의학에서 간호를 차별화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로 거슬러 올라가며 1940년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Carl Rogers)가 ‘인간중심(person-centeredness)’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이래 현대에는 대상자의 요구를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존중하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식과 실천을 뜻한다[8] 병원에서 인간중심돌봄의 개념은 환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환자중심돌봄(patient-centered care)’으로,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시설보다 노인이 일상을 보내는 거주지 개념을 강조한 ‘거주자중심돌봄(resident-centered care)’으로 명명되었으며 이를 통칭하는 것이 ‘인간중심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9]. 인간중심돌봄의 핵심요소에는 돌봄대상자의 신체적·사회적·정서적·영적 부분을 모두 포함한 전인적 돌봄과 개별 요구를 존중하는 맞춤형 돌봄, 돌봄대상자의 선호

도와 결정권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임파워먼트가 있다[8,9]. 이러한 노력은 노인의 자율성을 증가시켜 스스로 건강관리 계획과 수행에 참여하도록 돕고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또한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의 인간중심돌봄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로는 직원들의 돌봄 정도를 사정하기 위해 개발된 외국의 척도를 변안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바 있으나[11,12] 요양병원에서 핵심적인 돌봄주체인 간호사가 현장에서 인간중심돌봄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노인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노화가 가속화되어 기존의 만성질환 악화나 건강문제 발생으로 의학적 요구와 요양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입원이 수월한 요양병원을 찾게 된다[13]. 현재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요양병원의 질 관리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노력이 미흡한 가운데 노인이 인간관계를 지속하며 인생 말기를 지내다가 임종까지 맞이하는 장소가 요양병원인 시점에서[14] 노인에 대한 질병 관리와 일상생활 보조가 함께 이루어지는 요양병원에서의 돌봄주체인 간호사가 인식하는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질적 탐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삶의 의료적 욕구 해결보다는 자신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 해소에 더 많은 의도를 가지고 있음[15]을 고려할 때, 요양병원의 돌봄 문화를 주도하는 간호사들이 ‘인간중심돌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조사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포커스 그룹 연구는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경험의 배경을 이해하고 해석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15] 의미 있는 자료도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인간중심돌봄에 기반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노인을 돌보는 연구참여자인 간호사의 경험에서 도출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포커스 그룹 연구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7]. 그러므로 요양병원의 노인을 돌보는 실무 현장에서 ‘인간중심돌봄’과 관련하여 어떤 인식과 간호 경험을 하는지 간호사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구조화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실무 현장에서 노인을 위한 인간중심돌봄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간중심돌봄 문화 형성을 위한 간호 요구를 파악하고 요양병원 입원노인에게 인간중심돌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간호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주제 분석(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참여자 선정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을 위해 편의표출 방법을 이용해 100명 이상 규모의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추천받았다. 먼저 병원 간호 관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 기준에 적합한 간호사를 추천받았다. 연구 참여자는 요양병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Benner(1982)의 Dreyfus 기술습득 모형에 따른 간호사 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적임자(competent)는 현장에서 2~3년간 업무를 수행해온 간호사로 대표할 수 있는 것[18]과 국내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19,20,21].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그 내용은 익명으로 보관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도중에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준 후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3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였다. 연구 참여자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추천을 받아 편의표집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참여한 간호사는 총 21명이었다. 면담은 각 그룹 당 1회

에 걸쳐 실시하였고 1회당 41~79분간 4개의 포커스 그룹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4번째 그룹의 면담에서 더 이상 새로운 의미가 도출되지 않아 자료가 이론적으로 포화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자료수집을 중단하였다.

면담 진행은 포커스 그룹 연구를 여러 차례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담당하였으며, 공동 연구자들은 보조 진행자로 전반적인 인터뷰 준비와 면담시 간호사의 특성과 비언어적 행동 등을 메모한 현장노트를 기록하며 면담 후 디브리핑을 통해 자료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22]의 절차에 따라 질문의 원칙을 숙지하고 연구문제를 명확히 하여 포커스 그룹 면담을 위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에서 사용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인간중심돌봄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요양병원에서의 인간중심돌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중심돌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와 같은 형태의 질문을 사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포커스 그룹 면담 내용을 녹음한 내용은 빠짐없이 필사하였으며, 미흡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은 메모 후 공동연구자들과 디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 번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포커스 그룹 면담의 녹음을 전사한 필사본과 면담 중에 연구자들이 작성한 현장 노트 및 포커스 그룹 면담 직후에 작성한 디브리핑 노트 등으로서, 모두 A4용지 약 113페이지 분량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현상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상황 설명적 차원의 자료분석방법인 질적 주제 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제 분석은 면담, 관찰, 현장 메모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부터 서술의 대상이 되는 개념을 탐색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심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23]이다. 수집된 자료에서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별도로 표시하는 개방코딩을 한 후 유사한 것끼리 묶어 보다 추상성 있는 문장이나 단락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문장과 단락을 비교 분석을 통해 서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끼리 묶어 추상화시켜 하위주제로 범주화하여 명명하였다[24].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구자들과 총 16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이론적 포화 여부와 자료 수집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개념을 추출

하고 범주를 명명하는 분석과정을 재확인하면서 다양한 상황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범주를 추가하고 수정하였다.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일지를 기록하여 연구의 일관성과 자료 분석의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2.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25]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면담을 마친 후에 진행자가 토의내용을 요약하여 참여자로부터 면담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받았으며, 분석 결과를 3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여 그 의미를 확인하였고 결과에 동의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연구결과를 요양병원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노인 전문간호사 2명과 노인간호학을 전공한 간호대학 교수 1인에게 보여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확보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간호사 총 21명이었으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는 모두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43.6세였고, 결혼 상태는 기혼 17명(81.0%), 미혼 3명(14.3%), 이혼 1명(4.7%)이며, 교육 정도는 대졸 16명(76.2%), 대학원졸 5명(23.8%)이었다. 종교는 16명(23.8%)이 가지고 있었고, 총 임상경력은 평균 14.2년이었다. 요양병원 임상경력은 평균 4.4년이었으며, 직책은 일반간호사 12명(57.1%), 수간호사 8명(38.1%), 간호과장 이상이 1명(4.8%)이었다.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총 21명의 면담자료를 가지고 질적 주제분석 방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6개의 주제, 11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경험에서 도출된 6개의 주제는 ‘개별 요구 존중하기’, ‘끝까지 동행하기’, ‘남은 꿈 지지하기’, ‘가족과 동반자 되기’, ‘집처럼 생활하도록 돕기’, ‘문화 변화시키기’로 나타났다. 이 상에서 도출된 주제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호사가 인식하는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개별 요구 존중하기

‘개별 요구 존중하기’는 ‘개인 선호도 사정’, ‘개별화된 접촉’ 2개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노인이 살아온 고유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간호사는 좀 더 수고하게 되더라도 노인이 요구하는 바를 기꺼이 들어주고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인간중심돌봄이라고 인식하였다. 특히 노인들을 한 번 더 찾아가 부드러운 스킨십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3.1.1 개인 선호도 사정

참여자들은 선호도를 사정하여 개별화된 돌봄을 수행해야한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들의 고유한 삶의 경험을 존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행동의 맥락도 이들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병원 시스템에 일방적인 순응을 요구하기보다 노인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때로는 노인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 뜻을 지지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직원이나 다른 게 중심이 되지 않고 오로지 그 환자를 위해서 그 환자 중심으로 병원 시스템을 고려하든지... 우리가 케어를 할 때 내 생각이나 내 편의를 위해서 하기 보다는 환자를 위해서 하는 그런 간호라고 생각해요 (그룹3 참여자 4)

그분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분은 보파리를 쌀 수 밖에 없는 사람인거죠 그러면 못 싸게 말릴 일이 아니라 한번씩 같이 들어주는 것도 간호의 일부라 생각해요 또 시트를 계속 찢는 분이 계셔서 되게 혼내고 막 뭐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옷 고치는 수선사였던 분이어서 본인 평생에 했던 일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신문지 갖다 드리기도 하구, 못 쓰는 천 같은 거 갖다드려서 할 수 있게끔 해준 적도 있어요(그룹1, 참여자 6)

3.1.2 개별화된 접촉

참여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노인들을 한 번 더 찾아가 손을 잡아 주거나 등을 쓸어내리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야한다고 하였다. 간호사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조 인력들과 함께 노인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어머니들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면 아프다고 하다가도 괜찮아졌다고 말씀하세요. 당장 진통제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도 있으세요(그룹1, 참여자3)

인력이 많아지면 애기도 들어주고 스킨십도 할 수 있지요 우리가 다니면서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그룹4, 참여자4)

기저귀에 대변을 보셨는데 여사님들은 순차적으로 기저귀를 갈아 주셨다면서 당장 컴플레인 하셨던 분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어요. 일단은 환자가 불편한 점이 있을 때 먼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는 게 인간중심간호라 생각해요(그룹3, 참여자 5)

3.2 끝까지 동행하기

‘끝까지 동행하기’는 ‘최대한 기다림’, ‘포기하지 않는 소통’, ‘존엄한 죽음 지지’ 3개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인간중심돌봄을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영역을 고려한 간호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간호사는 노인들이 자신의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어야 하며,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한다고 하였다. 또 노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간호를 제공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3.2.1 최대한 기다림

참여자들은 노인들이 남아있는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을 유지시키려는 것과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심어주려는 의도였다.

수저질을 스스로 못 했던 어르신을 계속 지지해주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참고 기다려 주면 언젠간 수저질을 할 수도 있고 또 뉘날 거동이 잘 안됐던 어르신이 약을 줄임으로써 거동을 안정적으로 하게 돼서 기저귀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그룹3, 참여자 4)

3.2.2 포기하지 않는 소통

참여자들은 노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이들이 원하는 간호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들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도 명확한 의사소통이 되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단은 소통이 잘되어야 하고 어르신들이 봤을 때 인생의 마지막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부모처럼 소통하면서 또 보호자들과도 소통하면서 행복한 마무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그룹1, 참여자4)

허리가 아프다고 하세요 근데 정말 허리가 아픈 건 아니고 누워서 가만히 있다가보니 허리가 아팠던거죠 주사를 줘도 되지만 주사를 주기보다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고 휠체어 태워주고 운동시키면 통증이 경감되는... 관심을 보여주길 바라는 거죠(그룹 1. 참여자 3)

3.2.3 존엄한 죽음 지지

참여자들은 노인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차원의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노인이 원하는 임종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남은여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 하시다가 가시는 거라고 그것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룹2, 참여자 1)

일반병원에서는 전인간호가 항상 중요한 것처럼 요양병원에서는 노년의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간호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마무리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호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그룹1, 참여자4)

3.3 남은 꿈 지지하기

‘남은 꿈 지지하기’는 ‘미뤄진 꿈 응원’ 1개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인간중심돌봄을 노인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이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기획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처 알지 못했던 재능과 소질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일상생활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3.3.1 미뤄진 꿈 응원

참여자들은 노인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흥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시행되는 것이었다. 또 사회적 통념이 만들어낸 노인의 모습대로 살 것을 강요하지 않고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게 격려해주기도 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 환자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그림 그리는 것도 너무 잘하고, 그러면서 숨은 소질 개발 하듯이 환자들의 숨은 재능들을 끄집어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치매환자인데 왕년에 춤을 잘 찼다고 했거든요. 너무 행복해 하셨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것을 찾아내 주는 것이 제 일인 것 같아요. (그룹1, 참여자 4)

일본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첫사랑을 만나러 어떤 할머니를 찾아가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절대 그분들의 감성까지 죽진 않거든요. 나이 육십이 넘었어도 속에 빨간 옷 입거나 좀 야하게 입고.. 그럼 오히려 텔런트 같이 멋지잖아요. 70이상은 여자가 아니고 그냥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가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그룹1, 참여자 5)

3.4 가족과 동반자되기

‘가족과 동반자되기’는 ‘노인과 가족에 대한 감정이입’, ‘노인 가족과의 의사결정 공유’ 2개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인간중심돌봄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노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것과 노인 가족과의 사결정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신뢰관계는 요양병원 입원 당시뿐만 아니라 입원 후에도 노인에게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결정을 함께 정할 때 형성된다고 하였다.

3.4.1 노인과 가족에 대한 감정이입

참여자들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노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자신이나 부모님의 미래 모습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존중의 태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그 어르신들에게 맞춰서 간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그룹2, 참여자 3)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면 그 환자를 치료할 때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그룹 2, 참여자 4)

3.4.2 노인 가족과의 의사결정 공유

참여자들은 노인의 가족들과 노인의 전반적인 상태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신뢰감을 쌓는 것이 인간중심돌봄을 제공할 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노인의 입원 전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입원 후 안위의 변화나 앞으로의 치료계획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개개인에게 꼭 맞는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 노인의 가족, 간호사는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우리가 혹시나 체위변경을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간호사들이 와서 찰싹찰싹 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을 쥐도 약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보호자들하고 관계 형성이 잘 되었으며 우리 치료진들을 잘 믿지만 우리들하고 그런 관계형성이 형성 되지 않으면 어르신들 말만 믿거든요.(그룹1, 참여자 2)

3.5 집처럼 생활하도록 돕기

‘집처럼 생활하도록 돕기’는 ‘일상을 보내는 거주지 조성’ 1개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요양병원을 노인의 집처럼 편안한 생활공간 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인간중심돌봄으로 인식하였다.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인 동시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일상생활 장소였다. 또 간호사, 의사, 다른 환자와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노인들의 활동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물리적 공간이 부

족하다고 하였다. 노인들은 물리적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원치 않게 타인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고,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려고 병원 내 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3.5.1 일상을 보내는 거주지 조성

참여자들은 노인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처럼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였다. 병원은 말 그대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병원이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공간, 새로운 사람들과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 환자가 입중하는 시간이 시작해서 한시간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때 까지 고스란히 경험하는거죠 거기에서 곧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울했었어요.(그룹4, 참여자2)

어르신들이 거의 같은 공간에 갇혀 있다 보니 정말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협소해서 그런지 병원 주차장에서 운동을 하시거든요.(그룹3, 참여자5)

3.6 문화 변화시키기

‘문화 변화시키기’는 ‘조화로운 다학제간 협업’,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 2개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인간중심돌봄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노인의 권리와 자율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3.6.1 조화로운 다학제간 협업

참여자들은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모든 보건 의료 전문가들이 노인에게 개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목표를 함께 선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목사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계신데 얼마 만에 한 번씩 오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어르신들에게 어떤 케어가 들어가는지 듣고 필요한 부분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할 수도 있어야 할 것 같

아요 그런 소통이 서로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그룹4, 참여자4)

우리는 어르신들이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의사 선생님과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씩 줄여나가요 꼭 필요한 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들을 의학적 판단을 해서 하나씩 줄여가는 거죠 그리고 여사님들께 옆에 좀 더 자주 있어달라고 말해줘요 먹던 약을 끊어서 어르신들 상태가 또 변하면 낙상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약을 하나씩 빼고 경과를 지켜보면 누워서 있던 분들이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서 기저귀를 차고 계시던 분들이 기저귀 없이 생활하게 되고.. 저는 이런 게 환자 중심간호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우리는 힘들지만 어르신 상태가 좋아지면 되게 뿌듯함을 느끼거든요.(그룹3, 참여자2)

3.6.2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

참여자들은 인간중심돌봄을 위해 노인의 선호를 우선으로 여기는 문화를 형성해야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 차원에서 노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요양병원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퀄리티가 높은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르신 옆에 있는 인력들이 3교대나 2교대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그룹1, 참여자5)

간호 인력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자중심케어를 원하면서 직원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많은 업무를 떠맡게 하고 딱딱하게 한다면 악순환이 반복 될 거 같아요 충분한 컨디션에서 케어해야 하고, 또 중요한 건 요양병원 차원에서 이 분이 반드시 좋아지고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그룹3, 참여자4)

양질의 인적자원이 진짜 좋은 간호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심평원이든 보건복지부든 요양병원에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높은 질적 간호를 제공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그룹1, 참여자 5)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대의 흐름 따라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그림1, 참여자4)

4.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입원노인을 돌보는 간호사가 인간중심돌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자 실시되었으며,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주제분석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여 6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인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고령의 노인환자에 대한 직접간호뿐 아니라 일상 돌봄과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업무도 수행해야 하는 역할부담이 상당한 가운데서도[26]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영역에서의 진인적 접근 차원에서 ‘인간중심돌봄’을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인간중심돌봄의 첫 번째 주제는 ‘개별 요구 존중하기’였다. 참여자들은 노인의 고유한 삶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하는 것을 인간중심돌봄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시설 직원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획일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아닌,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인간이라는 전제 하에, 자신의 케어에 대한 선호도와 의사결정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27]. 이는 장기요양시설에서의 거주자중심간호를 기술한 선행연구에서[28] 노인이 언제 일어나고 잠들 것인지, 언제 목욕을 할 것인지, 시설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 등이 인간중심돌봄에 포함된다고 한 것과 맥을 함께한다. 신체적 기능이 상실되어감에 따라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는 잠재능력을 끌어올려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29] 건강 임파워먼트 전략을 활용하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 노인의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 연구에서 실험군의 운동관련 자기효능감, 신체 운동량, 신체 기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그동안 인지하지 못

했던 건강 행위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분석해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피드백과 지지를 받도록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30]. 이렇듯 노인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기반이 되어야한다[31]. 따라서 요양병원의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환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간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노인들을 향한 관심의 표현으로 손을 잡거나 등을 쓸어내리는 등의 가벼운 접촉이 노인들의 정서적 지지에 도움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노인의 생애발달주기 특성상 신체기능이 감소되고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신체적 감각에 더 의존하게 되는데 피부에 닿는 접촉은 생리적 기능과 내분비 순환을 활성화시켜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노인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32]. 접촉은 노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중재방법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였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주요 간호 인력인 간호사와 요양 보호사를 충원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노인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인간중심돌봄의 두 번째 주제는 ‘끝까지 동행하기’였다. 참여자들은 인간중심돌봄을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영역을 고려한 간호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전인간호의 필수요소로써 대상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차원의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가족의 역할과 구조의 변화로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가 가정에서 의료기관으로 변화하면서 간호사의 노인 임종경험 또한 늘고 있다[33]. 간호사를 대상으로 ‘영적간호 모듈’ 책자를 활용한 영적간호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영적 요구와 영적간호역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연구종료 후 영적간호의 필요성과 영적 간호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였다[34]. 이는 교육중재로 영적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양병원 노인과 상호작용하는 모

든 인력을 대상으로 영적간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방법을 교육하고 입원노인이 충분한 삶을 영위하다가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영적간호를 계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들이 병원 내 종교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자신이 속한 종교 목회자에게 영적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경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간호사와 노인의 친밀한 관계는 노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노인의 선호를 기반으로 한 돌봄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한다[27]. 특히 공감(empathy)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의 입장에 초점을 두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이를 상대방이 지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써[35],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노인 간호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31] 인간중심간호를 위한 정서적인 전략으로써 공감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공감 능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인간중심간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인간중심돌봄의 세 번째 주제는 ‘남은 꿈 지지하기’였다. 참여자들은 인간중심돌봄을 노인들이 스스로 삶에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는 노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삶 변화의 의미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요양병원 입원 노인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로움, 고독함, 두려움 등의 사회·심리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3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노인들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며, 의미 있는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병원마다 사회복지사가 기획한 노래교실과 웃음치료, 미술요법(점토, 그림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기분을 밝게 해주고 우울한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고 하였다. 이는 장혜경과 최외선의 연구[37]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자기표현과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보상이 있는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기획해 노인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소질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인간중심돌봄의 네 번째 주제는 ‘가족과 동반자되기’였다. 참여자들은 인간중심돌봄을 노인 가족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노인의 인생과 생활양식을 고려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가족들은 노인의 전반적인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는 못하므로 간호사와의 충분한 대화 없이 노인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갈등이 생긴다고 하였다[38]. 요양병원 간호사는 보호자의 높은 요구와 지나친 간섭을 받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설득하고 경청해야 하며, 때로는 노인 가족들의 분노 발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선행연구[39]에서와 비슷한 사례로, 본 연구의 참여자도 등 마사지를 받은 치매노인이 가족들에게 간호사가 자신을 때렸다고 표현하는 바람에 보호자와의 신뢰가 깨질 뻔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보호자와 간호사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노인을 이해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 전·후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파트너십은 동등한 권력, 의사결정의 공유, 대상자의 자율성 보장에 초점을 맞춘 중재방법인데[40] 뇌졸중 노인과 주 가족간호제공자를 대상으로 파트너십 기반 건강관리강화 주간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 후 노인의 건강결과변수를 확인한 연구[41]에서 실험군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간호사와 보호자의 파트너십이 긍정적일수록 노인의 신체적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호자와 간호사의 파트너십을 높일 수 있는 중재를 적용하여 노인의 신체적 능력 향상을 꾀하고 노인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인간중심돌봄의 다섯 번째 주제는 ‘집처럼 생활하도록 돕기’였다. 참여자들은 병원이라는 장소를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간 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인간중심돌봄으로 인식하였다. 요양병원은 치료뿐만 아니라 노인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일상생활 장소이며 가족을 떠나 간호사, 의사, 다른 환자와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생활의 장소로써, 임종을 맞을 때까지 머물게 되는 장소이다[3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노인들의 사생활을 위한 개인 공간이 없으므로 원치 않게 타인의 죽음을 보아야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는데 이는 요양병원의 인간중심돌봄 정도를 측

정하는 연구에서 환경적 지지와 관련된 문항인 ‘(주변정리가 안된) 혼돈스러운 환경이다’의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7]. 이에 노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독립적인 공간 확보를 위한 환경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인간중심돌봄의 여섯 번째 주제는 ‘문화 변화하기’였다. 참여자들은 인간중심돌봄을 질 높은 케어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업하고 노인의 권리와 자율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데, 박연환 등의 연구[42]에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실무자들이 노인의 건강상태나 욕구에 대하여 직종 간 소통 없이 일률적으로 분업화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노인이 개별화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함께 선정하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즉 요양병원에 입원 후에도 가정에서와 같이 노인의 일상생활과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신뢰와 구체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거주자중심돌봄(resident-centered care)의 개념이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운동(movement)의 차원에서 확산되었는데, 이는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선택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철학과 신념으로 ‘문화변화(culture change)’라고 불리는 실천모델로 등장하여, 실제로 현장에 활발하게 적용되어 지속적인 성과검증으로 이어지고 있다[43,44]. 요양병원에서의 문화변화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시설 거주 노인의 선택, 위엄, 존중, 자기결정, 목적 있는 삶 등을 들 수 있다[43]. 또한 인간중심돌봄을 위한 환경은 개개인의 문화, 신념, 습관, 선호도가 반영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물리적 환경과 인적자원, 조직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결과로 간호의 질 향상과 환자의 만족도 및 치료효과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8].

본 연구는 요양병원 입원노인을 돌보는 간호사들의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인간중심돌봄 문화 형성을 위한 간호 요구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기요양 병원과 입소시설의 양적인 증가와 동시에 질 높은 간호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간호사는 “개별 요구 존중하기”, “끝까지 동행하기”, “남은 꿈 지지하기”, “가족과 동반자되기”, “집처럼 생활하도록 돕기”, “문화 변화시키기”로 인간중심돌봄을 인식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인간중심돌봄은 노인의 선호도에 따라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또한 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 구성원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결정을 공유하며 노인의 권리와 자율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및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인간중심돌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입원노인을 돌보는 간호사들의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인간중심돌봄 문화 형성을 위한 간호 요구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요양병원의 인간중심돌봄 문화 형성을 위해 입원노인이 인식하는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질적연구를 수행해 본 연구 결과와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중심돌봄을 기반으로 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7 Elderly’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www.kostat.go.kr/>, May, 25, 2017.
- [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ospital present conditions based on cities and provinces”,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MIRE01#, May, 25, 2018.
- [3] J. H. Kim, C. S. Jang, “The Effect of the Working Environment of Elderly Care Facility Employees on the Care Service Quality and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5 pp. 533-547, 2016.
- [4] K. M. Lee, E. J. Jo, “Influence of Nursing Satisfaction,

-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Adjustment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5 pp. 441-451,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5.441>
- [5] S. Y. Han, "Assessment of Long-Term Care Service Needs in the Baby Boom Generation",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27, No.1 pp. 21-30, March, 2016.
- [6] J. Y. Yoon, T. Roberts, B. J. Bowers, J. Y. Lee, "A review of person-centered care in nursing homes",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2, No.3 pp. 729-745, 2012.
- [7] H. Sagong, G. E. Lee, "Person-centered Care and Nursing Service Quality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27, No.4 pp. 309-318, December, 2016.
- [8] S. Morgan, L. H. Yoder, "A concept analysis of person-centered care", *Journal of Holistic Nursing*, Vol.30, No.1 pp. 6-15, 2012.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6.22.1.24>
- [9] D. De Silva. Helping measure person-centered care [Internet]. London: Health Foundation, 2014.
- [10] A. K. Chang, Y. H. Park, "Effects of an Empowerment Program on the Adjustment of Older Adults to Nursing Home Life", *J Korean Acad Nurs*, Vol.42, No.4 pp. 559-567, 2012.
- [11] J. Y. Yoon, T. Roberts, B. J. Bowers, J. Y. Lee, "A review of person-centered care in nursing homes",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2, No.3 pp. 729-745, 2012.
- [12] Y. R. Tak, H. Y. Woo, S. Y. You, J. H. Kim,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Vol.45, No.3 pp. 412-419, June, 2015.
- [13] S. H. Kim,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mission Motivation and Needs of Social Hospitalization Patients: Focused on Inpatients of Convalescent Hospital" 2014. Master's dissert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 [14] C. M. Kim, J. Y. Lee, R. J. Ko, "Quality dimension of long term care hospital",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20, No.2 pp. 243-250, 2009.
- [15] G. S. Kang, J. S. Kim, "Change of Life of the Older due to Social Admission in Long-Term Care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7, No.1 pp. 103-123, 2017.
- [16] S. J. Kim, H. J. Kim, S. O. Lee, K. J. Lee. *Focus group methodology*, HyunMoonSa Publishing, 2000.
- [17] A. Nyamathi, P. Shuler, "Focus group interview: a research technique for informed nursing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15, No.11 pp. 1281-1288, 1990.
- [18] P. Benner, "From Novice to Expert", *American Journal of Nursing*, Vol.82, No.3, pp. 402-407, 1982.
DOI: <http://dx.doi.org/10.1097/0000446-198282030-0004>
- [19] S. Y. Lee, "A Study on Perception of Career Ladder System Career-planning and Career-commitment of Clinical Nurses" 2018.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20] K. O. Park, M. S. Yi, "Nurses' Experience of Career Ladder Programs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1, No.5 pp. 581-592, 2011.
- [21] H. S. Park, S. J. Ha, J. H. Park, J. H. Yu, S. H. Lee, "Employment experiences of nurses caring for foreign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0, No.3 pp. 281-291, 2014.
- [22] S. J. Kim, H. J. Kim, S. O. Lee, K. J. Lee. *Focus group methodology*, HyunMoonSa Publishing, 2000.
- [23] V. Braun, V. Clarke,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3, No.2 pp. 77-101, 2006.
- [24] H. F. Hsieh, S. E. Shannon,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15, No.9 pp. 1277-1288, 2005.
- [25] Y. S. Lincoln,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shing, 1985.
- [26] S. E. Park, E. Y. Yeom, Experience of the Role Conflict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7 pp.368-381, 2016.
- [27] M. J. Koren, "Person-centered care for nursing home residents: The culture-change movement", *Health Affairs*, Vol.29, No.2 pp. 312-317, 2010.
- [28] M. K. Flesner, "Person-centered Ca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in Long-Term Care", *Journal of Nursing Care Quality*, Vol.24, No.4 pp. 273-276, 2009.
- [29] M. J. Moon, "Correlational study of IADL, Self-esteem, Empowerment of Elderly People Living at Hom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2, No.3 pp. 382-388, 2005.
- [30] C. Park, M. Song, B. Cho, J. Lim, W. Song, H. Chang, Y. H. Park, "Effects of a multi-disciplinary approached, empowerment theory based self-management intervention in older adults with chronic ill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5, No.2 pp. 192-201, 2015.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5.45.2.192>
- [31] Y. K. Kim, S. Kwon, "Effects of Empathy and Attitude in Caring for Elders by Nurses in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19, No.3 pp. 203-213, 2017.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7.19.3.203>
- [32] H. J. Kim, K. Y. Lee, "Effects of Hand Massage on Depression, Self-esteem and Vitality of the Elderly Patients in Convalescent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2 pp. 202-209, 2016.
- [33] M. J. Yi, J. S. Lee, "Nurses' Experiences of the Death of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s", *J Korean Acad Nurs*, Vol.45, No.4 pp. 513-522, 2015.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5.45.4.513>
- [34] J. O. Jeong, H. S. Jo, "Effect of the Spiritual Care Module Education Program for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1 pp. 51-62, 2016.
- [35] E. L. L. Monica, "Construct validity of an empathy

instrument,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4, No.4 pp. 389-400, 1981.

DOI: <http://dx.doi.org/10.1002/nur.4770040406>

- [36] G. S. Kang, J. S. Kim, "Change of life of the older due to social admission in long-term care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37, No.1 pp. 103-123, 2017.
- [37] H. K. Jang, W. S. Choi,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Patient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12, No.3 pp. 681-701, 2005.
DOI: <http://www.riss.kr/link?id=A105481373>
- [38] B. S. Yoo, "A Study on the Present and Issues of Family Involvement in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The Korean Academy of Long-Term Care*, Vol.4, No.1 pp. 6-25, 2016.
- [39] J. S. Lee,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Burnout Experience for Nurses in Geriatric Hospital", 2010. Master's dissertation, Busan Catholic University.
- [40] M. L. Hook, "Partnering with Patients- a Concept Ready for Ac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56, No.2 pp. 133-143, 2006.
- [41] Y. H. Park, H. K. Chang, "Effects of Partnership Daycare Service on Blood Pressure, Cognitive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Nutritional Status of Older Adults Following a strok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12, No.3 pp. 237-247, 2010.
- [42] Y. H. Park, H. L. Bang, G. H. Kim, S. Oh, Y. I. Jung, H. Kim, "Current Status and Barriers to Health Care Services for Nursing Home Residents: Perspectives of Staffs in Korean Nursing Hom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7, No.4 pp. 418-427, 2015.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5.27.4.418>
- [43] K. Brune, "Culture Change in Long Term Care Services: Eden-Greenhouse-Aging in the Community", *Educational Gerontology*, Vol.37, No.6 pp. 506-525, 2011.
- [44] Weiner, S. Audrey, J. L. Ronch. *Culture Change in Long-Term Care*, Routledge Publishing, 2003.

장 희 경(Chang-Hee kyung)

[정회원]



<관심분야>

노인간호, 재활간호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3년 9월 ~ 2015년 8월 : 서울 여자간호대학교 조교수
- 2015년 9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길 초 룡(Cho-rong Gil)

[정회원]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 2018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김 혜 진(Hye-jin Kim)

[정회원]



<관심분야>

여성건강, 노인건강

- 2014년 9월 : 창원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배 한 주(Han-ju Bea)

[정회원]



<관심분야>

정보경영, 정보통신

- 201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임상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9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박사과정 재학 중)

양 은 옥(Yang-Eun ok)

[정회원]



- 2016년 2월 : 서남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 2015년 3월 ~ 현재 : 21세기 의료재단 복음요양병원 간호과장

<관심분야>
노인간호, 성인간호

윤 미 림(Yoon-Mi lim)

[정회원]



- 2007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관심분야>
노인간호, 재활간호

하 자 현(Ha-Ja hyeon)

[정회원]



- 2015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박사과정 재학 중)

<관심분야>
성인건강, 노인건강